

월간

공군



제549호 03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기획
3·1운동과 항공독립운동가

14 내 옆의 공군인
여성 최초 생도전대장, 대령(진) 박지연

10 특집 I
공군 박물관 인사이드 I



18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F-5E/F(제공호)



12 특집 II
피어나! 너 내 동료가 돼라!
-꽃에 얽힌 이야기



20 Aero Detail
미국의 지원기



표 지(앞) 태극이 수놓인 하늘을 누비는 항공독립운동가와 만세를 외치는 시민(일병 문준혁)
표 지(뒤) 새 학기를 맞은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3월 1일(통권 제549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대령 최윤석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020080)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26	<p>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 III. 덴버</p> 	42	<p>영화로운 나날 「동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p>
		44	<p>생각하는 그림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p>
		46	<p>트렌드가 보인다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CES 2024 돌아보기</p>
30	<p>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p>	48	<p>책 읽는 공군 책을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제2미사일방어여단 155미사일방어대대 상병 김선규)</p>
36	<p>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설탕: 달콤 씹쓸한 역사</p>	49	<p>공군인의 하루 후회하더라도 괜찮다 (제1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 하사 김혜린)</p>
38	<p>동서양 그랜드투어 정선의 「금강전도」: 화가의 눈으로 재구성한 금강산</p>	50	<p>토닥토닥 만남과 짐작</p>
40	<p>한 달, 한 권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순수함 『어린왕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p>	51	<p>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p>



권기옥



노백린



최용덕

3·1운동과 항공독립운동가



100여 년 전 3월 1일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이 땅을 가득 채웠다.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만세를 외쳤다. 3월 1일 거족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의 불길이 한반도를 넘어 간도, 연해주 등으로 퍼져가며 독립을 향한 민족적 의지가 드러났다.

3·1운동 자체가 우리를 광복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3·1운동은 독립을 향한 민족적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이 대중화되며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3·1운동은 항일독립운동사에도 큰 변곡점이 된다. 3·1운동의 결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변화하며 독립을 향한 다양한 관점에서 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만나볼 세 명의 인물들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항공선각자로서 활동하며 조국에 헌신함은 물론 시대를 앞서가는 면모를 보여줬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3·1 운동에 직접 참여한 권기옥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알려진 권기옥은 학생 시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3·1 운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평양 송의학교에 재학 중이던 권기옥은 3·1 운동에 뛰어들어 3주 동안의 옥고를 치른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채를 판매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여 또 다시 일제에 체포되고, 이로 인해 6개월간의 옥살이를 더 하게 된다. 권기옥은 일본 경찰들의 모진 고문도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이겨낸다.

몇년 전 권기옥은 본인의 삶을 바꿀 한 사건을 경험했다. 바로 조선에서 실시된 미국의 곡예비행사 스미스(Smith)의 비행을 보게 된 것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서 곡예비행과 같은 시범비행을 실시하며 최신 기술인 비행기를 조선인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일본이 서구열강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범비행의 충격을 기억한 권기옥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비행기를 활용한다면 총독부도 쉽게 폭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권기옥이 퇴명탕 중화민국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홍장을 수여받는 모습
(출처: 대만화문전자서고(臺灣華文電子書庫))

상해로 망명한 권기옥은 비행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권기옥은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국 운남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입학하며 비행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2년 동안 비행기량을 증진한 권기옥은 1925년 운남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국민군 항공대의 창설 멤버가 되어 상해사변에 참전하는 등 항일 전선에서 활약한다.

권기옥은 단순히 비행사가 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조종복을 벗은 이후에도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해방 후 국방위원으로서 '공군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렇듯 권기옥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항공선각자로서의 모습까지 갖춘 인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다.



권기옥 사진



권기옥 사진 증정식(2020. 8. 29.)

비행학교를 설립하다!
계원 노백린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 당시 항공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첨단 기술이었다. 부족한 자본 속에서 독립운동에 당장 필요한 것을 구축하기도 빠듯했던 상황에 항공기를 통한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노백린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된다. 무(無)에서 비행학교를 설립하며 항공독립운동의 선봉에 설 항일비행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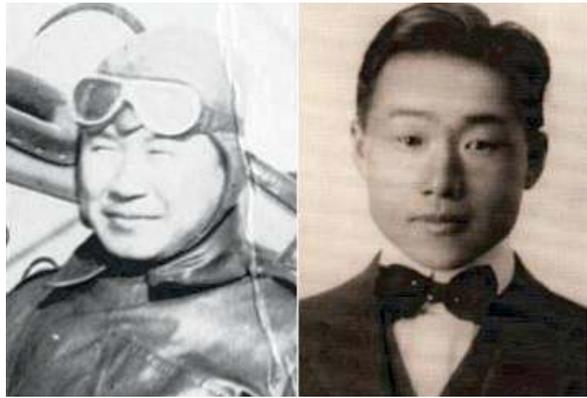
노백린은 어릴 적부터 ‘무인(武人)’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대한제국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노백린의 대한제국군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면서 군복을 벗게 된다. 이후 노백린은 독립단체 신민회에서 활동하였고 국권침탈 이후 일제의 회유와 압박을 피해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대한제국 무관학교장 시절 노백린

미국 하와이로 망명한 노백린은 그곳에서도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박용만과 함께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별동대 주임을 맡아 독립군 양성을 위해 힘썼다. 이후 노백린은 미국 본토에서 활동하며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쟁에서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행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 활동을 시작한다.

이 무렵 한반도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설립된다. 노백린은 3·1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임시정부의 첫번째 군무부 총장이 되었다. 한인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호소로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김종림을 설득할 수 있었고, 1920년 그와 함께 월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노백린이 설립한 비행학교는 1923년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대홍수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노백린과 김종림

샌프란시스코 교민단체 국민회의 기관지인 『신한민보』에 실린 노백린의 인터뷰를 보면 월로우스 비행학교의 목적은 독립을 위해 필요한 비행술을 갖춘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노백린의 노력으로 탄생한 월로우스 비행학교가 단순히 비행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항일투쟁에 앞장서는 군대의 모습을 지향했다는 의미이며 항공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노백린이 가진 이러한 선견(先見)은 이후 다른 한인 비행사들에게도 이어져 항공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미국가주, 한인이행터. "노백린 장군 지위하에"



월로우스 비행학교 교관과 학생 조종사들 1920

월로우스 한인 비행학교의 교관과 학생 조종사들

3·1운동을 촉매제로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공군 창설의 주역, 최용덕

최용덕은 국권 피탈 후 북경으로 망명하고 독립운동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육군군관학교를 거쳐 장교로 복무했다. 그는 3·1운동의 소식이 들려오자 서알보 등과 함께 대한독립청년단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알보의 권유로 보정항공학교에 입학한 최용덕은 졸업 후 중국 군벌들 간 주요 전투에서 조종사로서 활약했고, 국민정부의 인정을 받아 중국 공군의 주요 간부로 자리하였다. 최용덕은 중화민국 공군으로 활약하며 일제에 저항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다.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군되었을 때, 최용덕은 참모장으로서 한국광복군의 일원이 된다.



중화민국 공군 활동 당시 기사(동아일보)

최용덕은 이후 독립된 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공군 창군의 주역이 된다. 1943년 공군설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군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광복 후 최용덕이 귀국했을 때, 국내 항공인들은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항공건설협회를 설립하고 공군 창설을 포함한 항공력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군정이 당시 지휘부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이등병으로 입교하여 미국식 군사훈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최용덕은 “옛날 이순신 장군도 조국을 위하여 백의종군하였습니다. 대의를 위해 우리가 감내합니다.”라며 다른 간부들을 설득했고, 모두 미국식 군사훈련을 이수했다. 이후 최용덕은 초대 국방부 차관을 거쳐 공군사관학교장과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창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군이 6·25 전쟁 속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최용덕이 작사한 공군가, 공군사관학교 교가와 그가 만든 공군의 결의에 담긴 정신은 앞으로도 공군인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



최용덕 사진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I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군된 이후 어느덧 75주년을 향해 가고 있다. 7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공군은 수많은 발자취를 남기며 발전해왔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에 위치한 공군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에서는 공군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첫번째로 소개할 문화재는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이다. 1949년 1월 14일 독립된 공군을 전제로 항공사관학교가 항공 간부와 정규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김포에서 발족했다. 이 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의 전신으로 공군이 창군되면서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였다. 1949년 6월 10일 97명의 제1기 사관생도가 입교하였고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정예 공군 장교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다. 2년의 교육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임관하게 된 공군사관학교 1기생들은 3차로 나누어 비행교육을 수행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고 있는 시기였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공군사관학교 1기생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훈련과 교육에 임했다.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다. 1952년 1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공군사관학교 1기생 조종사들은 첫 출격한다. 출격을 앞둔 12월 5일, 이들을 환송하기 위한 장행회(壯行會)가 최용덕 총참모장 임석하에 거행되었다. 이 태극기는 이 행사에서 등장하는 문화재로 출격을 앞둔 1기생 선배 조종사들에게 2기생 후배들이 선배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어 나누어준 것이다. 태극기 속에는 신념, 임전무퇴, 조국통일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태극기는 급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첫 출격을 감행하는 선배들의 비행무운(飛行武運)을 빌었던 당시 사관생도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유물이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태극기를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는 1기 조종사들

* 장한 뜻을 품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송별하기 위한 모임



공군사관학교 제7기 졸업 및 임관식 때 재현된 태극기 전달 장면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조종사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더불어, 최용덕이 항공독립운동을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항공력을 통한 조국 수호’라는 목표 중 인재양성 분야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 1기생 조종사들은 실제 작전에 참가하여 활약한다. 대표적으로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강원도 고성 남쪽 351고지는 동부전선의 최북단 돌출부에 있어 동해안 지역으로 침투하는 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이며, 인근에 원산과 강릉을 잇는 해안도로가 위치한 지리·전술적 요충지였다. 국군 5사단에서 방어 중인 351고지와 339고지에 북한군이 공격을 가하자, 우리 공군의 F-51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면서 351고지 전투 항공지원작전이 시작되었다. 공군은 휴전이 되는 그날까지 성공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38선 북쪽의 설악산, 속초지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해당 작전에는 81명의 조종사가 투입되었는데 이중 1기 출신 조종사는 32명에 달했다. 또한, 해당 작전 중 총 6명의 조종사 전사자하였는데 이들 중 4명이 1기 조종사였다. 비록 출격시간이 짧아 100회 출격이라는 영예를 달성하지는 못했

지만, 이들이 보여준 용기는 개전 초기부터 출격한 선배 조종사들과 견주어 충분했다.

공군 박물관의 이 태극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태극기에는 위기에 빠진 조국을 향한 1기생들의 희생정신이, 선배들의 희생에 대한 후배들의 진심 어린 존경이 그리고 ‘항공력을 통한 조국의 수호’라는 최용덕의 꿈이 묻어있다. 그리고 태극기에 남아있는 정신은 사관생도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자랑과 긍지가 되고 있다. 



장행회 기념 사진

피 어 나 !

너 내 동 료 가 돼 라 !

꽃에 얽힌 이야기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월간 『공군』에서는 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을 소개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꽃들이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에게도 피어나 모두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가슴속의 동료이자 친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매 화

○ 원산지: 중국 ○ 높이: 5~10m ○ 개화 시기: 2~3월 ○ 꽃말: 고결, 충실, 인내, 맑은 마음

여러분은 ‘아치고절(雅致高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라는 뜻으로 매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언뜻 평범한 꽃처럼 보이는 매화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매화의 개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화의 개화 시기는 2~3월로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추위와 눈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고야 마는 매화의 모습은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보여주기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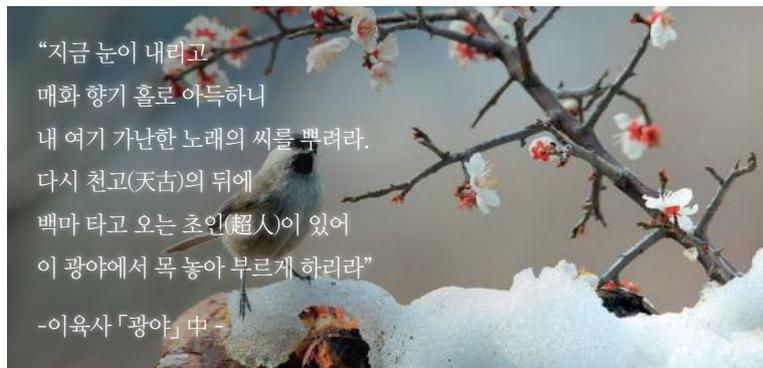
매화의 이런 모습은 지조와 절개를 중시했던 선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화는 학식과 인품, 덕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군자(君子)’로 비유되며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四君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은 문학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용되었습니다. 때로는 임금을 향한 충절을 상징하기도, 벗을 향한 우정을 상징하기도, 연인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역경을 딛고 꽃을 피워내는



매화

매화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국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겨울에서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에는 많은 이들이 닮고자 노력한 많은 가치들이 담겨있습니다. 흔들림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 속에서도 곳곳이 꽃을 피워내는 매화의 모습은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天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中-

눈 속에서 핀 매화

수 선 화

- 원산지: 지중해 연안, 동북아시아 ○ 꽃자루: 20~40cm
- 개화 시기: 12~3월 ○ 꽃말: 자기 사랑, 자존심, 고결, 신비

나르시시즘(Narcissism), 정신분석학에서 자기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황금빛의 아름다운 꽃을 가진 수선화의 속명은 나르키소스(Narcissus)입니다. 언뜻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정신분석학 용어와 꽃의 이름이 이렇게도 닮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들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테스피아이라는 도시에는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들 중 에코(Echo)라는 이름의 님프*도 있었습니다. 에코는 원래 수다쟁이로 유명했습니다. 수다쟁이인 에코는 제우스(Zeus)를 감시하던 헤라(Hera)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이 때문에 헤라는 제우스를 놓치고 맙니다. 화가 난 헤라는 에코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저주를 내립니다. 나르키소스를 사랑한 에코였지만 저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에코는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형체가 사라진 채 목소리만 남아 메아리(echo)가 되었습니다.



수선화



물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가 무시한 이들은 에코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거절당한 다른 이가 나르키소스도 사랑으로 고통받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기도가 닿았고 나르키소스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상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만 들여다보다 탈진한 나르키소스는 죽게 되고 그 자리에 꽃이 피입니다. 꽃은 죽은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Narcissus(수선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후대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 신화에 비유하여 '자기애'를 의미하는 용어인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만들어냅니다.

수선화의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자기애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다른 곳을 보지 못했던 나르키소스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세계에 갇혔을 때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수선화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통해 얻어 가길 바랍니다. ☐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총칭

내 옆의 공군인

제56화
여성 최초
생도전대장,
대령(진) 박지연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생도전대장 대령(진) 박지연입니다. 2002년 공군사관학교 49기로 졸업한 이후, 다시 모교로 돌아와 생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의 모습을 보며 가끔 예전 생각에 PTSD(?)가 올 때도 있지만 잘 극복해나가며 열심히 생도들을 교육 중이며, 자나 깨나 생도들 생각뿐인 여러 훈육요원들과 함께 사관생도들이 장차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주역이자 멋진 장교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무를 보고 있는 생도전대장

생도전대장은?

생도전대장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에 소속되어 있는 생도전대의 지휘관으로서 교장님과 생도대장님의 지휘지침에 따라 생도 훈육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도전대는 2개의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대는 다시 4개의 중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대에는 중대장(소령), 훈육관(대위)이 보임하여 있습니다. 이들은 생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생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도전대장은 이들 훈육요원들의 리더로서 훈육요원들이 훈육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며 생도전대에서 생도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멋진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훈련처, 운영지원처, 항공체육처, 리더십/인성교육실 등 생도 교육과 관련된 많은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도들에게 최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대장이 되고 싶은지?

묵묵히 저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전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걸음 정도 물러나서 생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도들의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파악하며 묵묵히 지원해주며 생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회의 중인 생도전대장

또한, 이곳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지켜내야 할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많은 악·폐습들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의 모습과 생도로서 잃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지켜내는 그런 생도전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보람이 되는 순간

사관학교에 돌아와서 느낀 점은 모든 방면에서 사관학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도들 스스로의 자정 작용과 훌륭한 중대장·훈육관들의 노력으로 악습이 고 폐습이지만 그 시대에는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제도적인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 변화와 함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많은 가치

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관학교는 어떻게 하면 생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훈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현재의 발전하고 있는 사관학교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부족한 제가 후배들을 양성하고 훈육하는 생도전대장의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월간 공군과 인터뷰 중인 생도전대장

여성 최초의 생도전대장

제가 입교한 1997년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최초로 여생도의 입교가 허락된 해였습니다. 이는 공군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여생도로 입교를 하다보니 ‘첫 여자 생도, 첫 여군 전투조종사, 첫 여군 비행대대장, 첫 여군 생도전대장’까지 많은 타이틀들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들은 특별히 ‘나’여서 얻게 된 타이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화하는 특정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분에 넘치는 기대나 관심이 아닐지 경계하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최초의 생도전대장’이라는 타이틀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게 온 기회이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앞서 말한 목표와 같이 묵묵히 저의 일을 해나가는 전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단체 사진



생도들과 대화 중인 생도전대장

생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생도들에게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배’로서 저보다 더 나은 장교가 되어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생도들이 마치 자식들처럼 느껴져 늘 걱정되는 마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 우리 사관생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전합니다.

우선, 또래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요시 되는 가치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때론 공동체적인 가치보다 ‘나’를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있습니다. ‘나’를 중시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관생도고 졸업 후 여러분의 역할은 국가에 봉사하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늘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생각해보고 주변 동기, 선·후배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생도들에게는 체력은 물론 학업 등 여러 가지 역량들이 요구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꿈꾸는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특정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생도 생활 그리고 이어서 장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딜레마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웠던 가치들과 가르침들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스스로 행한 일에 늘 떳떳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생도들 모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뛰어난 능력을 이곳 생도대에서 더욱 가다듬으며 꽃을 피우길 전대장으로서 늘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며 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F-5E/F

제공호

KF-5E/F 전투기는 1982년 개발사(노스롭)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대한민국(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조립·생산한 제트전투기로서 ‘제공호’로 명명되었다. 두 개의 터보제트 엔진(J85-GE-21)을 장착하여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현재까지도 탁월한 긴급출동 능력과 공중 기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일선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길이 14.5m

폭(너비) 8.1m

높이 4.1m

최대속도 마하 1.6 (약 1,958 km/h)

무장 20mm M39A3 기관포,
AIM-9, KGBB 등

Aero Detail

미국의 지원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1999년 코소보전에서 미군은 전자전 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美 해군의 전자전기 EA-6B 프라울러는 美 해군의 임무는 물론 美 공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항공작전까지 지원하면서 과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美 공군은 EF-111 전자전기가 퇴역한 후 마땅한 후계기가 없었고, 나토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 48대의 프라울러가 총동원되면

서 승무원과 후속 군수지원, 기체, 임무 장비 운용 측면에서 부하가 매우 컸다.

기체 자체의 노후와 운용상의 피로까지 겹쳐 프라울러의 노후화는 가속됐고, 美 국방부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공격기 개념연구에 착수했다. 차세대 합동 전자공격기 개념연구에서는 신규 개발안부터 기존 항공기의 개조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결국,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美 해군은 독자적으로 복좌형인 F/A-18F 수퍼호넷을 전자공격기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美 해군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베트남전 이후 미 해군의 주요한 전자전기로 운용되었던 EA-6B 프라울러

EA-18G 그라울러는 기본적으로 F/A-18F 수퍼 호넷 전투기에 EA-6B의 성능향상형(ICAP III) 시스템을 통합한 전자공격기이다. EA-6B 성능향상형이 EA-18G에 맞춰 일부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양 체계간의 공통성은 약 70%에 달한다.

EA-18G는 전자공격을 위해서 EA-6B가 탑재했던 AN/ALQ-99 레이더 교란 포드, AN/ALQ-218 수신기와 AN/ALQ-227 통신 방해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그리고 적 위협 레이더가 포착되었을 때, 직접 파괴가 가능하도록 AGM-88 대레이더 미사일도 장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EA-6B와 달리 전투기를 플랫폼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동성능에 AIM-120 미사일 운용 덕분에 EA-18G는 제한적으로나마 공중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초기형인 EA-18G 그라울러 블록 I에는 AGM-88이나 AIM-120과 같은 기본적인 무장만 탑재 가능했지만 블록 II에 이르러서는 AGM-154 JSOW와 같은 신규 무장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능동전자주사 레이더와 전자공격 시스템 연동되었고 레이더 경보장치와 대응장비도 통합되는 등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졌다.

그라울러가 수행하는 임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 EA-6B가 수행하던 원격 전파교란(jamming) 임무는 그대로 그라울러에게도 이어진다. 그라울러는 AN/ALQ-249 차세대교란장비 또는 기존 AN/ALQ-99 교란장비 3개와 외부연료탱크, 2발씩의 AGM-88, AIM-120 미사일을 탑재하고 원격 전파교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둘째, 수퍼 호넷 전투기를 토대로 개조한 그라울러는 그 임무를 이어받아 전투기와 공격대형을 유지하며 적지에 먼저 침투해 아군 공격 편대를 보호하는 호위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존 EA-6B 전자전기에서는 부족했던 능력이다. 셋째, 그라울러는 긴급표적 공격 임무를 수행한다. 긴급표적 공격은 AN/APG-79 레이더와 AN/ALQ-218 수신기를 조합해 위협을 식별하고, 공대지 무장으로 직접 공격하거나 공격 편대에 자료를 전송하는 임무 개념으로 그라울러 해당 임무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라울러는 정찰 임무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적을 감시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다.

그라울러 개발은 성공적이어서 美 해군의 EA-6B를 완전히 대체했다. 반면 美 공군은 EF-111 전자전기 이후 마땅한 전자전 대안이 없어 당분간은 그라울러가 미군의 유일한 전자공격기 침투 자산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재밍포드와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한 EA-18G

SR-71 블랙버드 정찰기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기로 기록되는 SR-71 ‘블랙버드’는 총알보다도 빠른 마하 3(3,672km/h)의 속도로 순항이 가능하다. 냉전 시절,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전략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된 블랙버드의 최고속도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제트정찰기 SR-71 블랙버드

이러한 SR-71 블랙버드의 개발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소련 영공에 대한 정찰을 목적으로 고공 정찰기 U-2를 개발했다. 1954년에 등장한 U-2는 당시 소련의 요격기가 상승할 수 있는 고도보다 높은 85,000ft(약 26km) 고도까지 상승이 가능해 안전

하게 소련 영공을 정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도의 우위는 얼마 가지 않았다.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 CIA는 1958년이면 더 이상 U-2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IA는 U-2를 대체할 차기 비밀 정찰기를 계획한다. OXCART라 명명된 이 비밀프로젝트에는 콘베어와 록히드가 경쟁했다. CIA는 결국 록히드를 주계약자로 최종 결정하고, 1959년부터 비밀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SR-71의 요구성능은 순항속도 마하 3.29(약 4,027km/h)에 운용고도 90,000ft(약 27km)라는 극단적인 것이었다. 마하 3(3,672km/h) 이상의 고속비행에서는 대기와의 마찰열 때문에 기체 표면 온도가 260℃ 이상으로 상승한다. 일반적인 항공기 소재는 이러한 온도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SR-71은 구조 중량의 대부분을 티타늄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한다.

더불어, 마하 3(3,672km/h)에서 작동할 수 있는 특수 엔진의 개발도 새로이 추진됐다. SR-71용 엔진으로는 기존 터보제트 엔진 구조를 이용하여 추력을 극대화시킨 프랫 & 휘트니의 J-58 터보램 제트엔진(추력 31,500lbs, 약 14,288kg)을 쌍발로 탑재하기로 결정됐다.

1970년대에 SR-71은 속도와 고도면에서 수많은 신기록을 수립했다. 정찰기로서 SR-71은 80,000ft(약 24km) 이상의 상공에서 시간당 100,000 평방마일의 지구 표면



고속 비행을 위해 독특한 형상으로 설계된 SR-71 블랙버드

을 정찰할 수 있다. 정찰 장비로는 기수 등 4개소의 센서 베이(Sensor Bay)에 광학 정찰 장비, 전자정보 수집 장비(ELINT), 적외선 정찰 장비 등을 탑재해 임무에 맞게 사용했다. 특히, 광학 정찰 장비의 성능은 80,000ft(약 24km) 상공에서 골프공을 촬영할 정도였다.

총 31대가 생산된 SR-71은 美 공군, 해군과 NASA에서 운용됐다. 사고로 인해 총 12대를 잃었고, 1990년 1월 25일에 운영 및 유지비의 과다소요 및 정찰위성의 발달로 26년간의 정찰임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시적으로 2대가 작전에 복귀하였지만 결국 SR-71 프로그램은 1998년에 완전 파기됐다.

SR-71은 비록 정찰 임무에서 퇴역했지만 26년간의 운용 기간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높은 고도에서 비행한 항공기였다. SR-71보다 더 빠른 항공기로는 X-15 실험기가 있다. 그러나 X-15는 로켓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블랙버드의 최고속도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U-2 고고도 정찰기

U-2 정찰기는 일반 정찰기와 달리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된 전략정찰기다. 적군의 병력이나 배치 상황 등을 정찰하는 전술정찰에 비해 전략정찰은 잠재적국의 전략무기 배치상황이나 군사기지 배치, 방위산업의 생산능력 등을 정찰한다. 단기간에 끝나는 전투보다는 국가 수준의 정치나 외교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전략정찰기의 임무인 것이다.

U-2는 구소련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무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CIA가 기밀 예산을 투자해 비밀리에 개발한 특수 기체다. U-2기의 'U'는 Utility 즉, '다용도기'를 의미한다. 정찰기를 의미하는 'R'이 사용되지 않고 'U'가 사용된 이유는 CIA가 기체의 목적과 개발경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U-2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은 1955년 8월 4일에 비공식적으로 있었고, 4일 후 공식적인 최초 비행이 있었다. 이 U-2기의 시험비행 장소는 보안을 필요로 했기 때문



美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U-2

에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네바다주의 그룹 레이크, 일명 에어리어 51에서 이뤄졌다.

CIA는 1956년 4월 말 공군과 합동으로 U-2 부대를 유럽에 파견, 당시 서독을 거점으로 6월 20일부터 동유럽 정찰 비행을 시작했다. 1956년 7월 4일에 최초로 소련 영공에서 레닌그라드를 정찰했으며, 다음날 2번째 소련 정찰에서는 모스크바까지 정찰했다. U-2의 정찰 성능에 만족한 CIA는 서독 외에 터키와 일본까지 U-2를 배치해 정찰범위를 늘렸다.



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U-2



美 항공우주국에서 연구목적으로도 운용되는 U-2 파생형 ER-2

U-2는 정찰 임무 시 통상 70,000ft(약 21km) 고도 이상으로 비행했다. 1950년대 당시 요격기 운용고도는 50,000ft(약 16km)에 불과해 전투기로는 U-2의 정찰 비행을 막을 수 없었다. 고고도 비행으로 자유롭게 소련을 넘나들던 U-2의 비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U-2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960년 5월 1일 프란시스 게리 파워즈가 조종한 U-2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미국의 '은밀한' 정찰 비행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격추 사건 이후 U-2의 본래 목적인 소련 상공 비행은 전면 중단되었지만 쿠바, 중국, 베트남, 북한, 중동 국가를 상대로 한 정찰 비행은 계속됐다. 특히 중국 본토의 정찰 임무는 미국이 아닌 대만 공군 조종사에 의해 실시되곤 했다.

U-2는 1962년 10월 쿠바 위기 시, 소련 탄도 미사일의 쿠바 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촬영해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U-2는 쿠바 상공에서 정찰 비행 중 지대공 미사일에 또다시 격추되면서 3차 세계대전 발발의 위기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

냉전시대에 활약한 구형 U-2를 1세대로 본다면 최근의 전쟁에는 2세대 U-2가 사용됐다. 2세대에 속하는 U-2R은 1968년부터 배치됐고, 엔진을 교체한 U-2S(TR-1A)가 1989년까지 美 공군에 인도됐다.

美 공군은 U-2 정찰기를 2012년까지 퇴역시키고, U-2

의 빈자리는 무인 고고도 정찰기인 RQ-4 글로벌 호크로 대신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U-2 정찰기의 가치는 무인기가 간단히 대체할 수 없기에 2024년 현재에도 여전히 주요한 정찰기로 운용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 미국의 주요 전쟁에서 반세기 넘게 핵심 정찰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U-2는 美 공군의 마지막 유인 전략정찰기로 역사 속에 남게 될 전망이다.

P-3 해상초계기

1950년대 대잠수함전의 최대 이슈는 1954년 9월에 취역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였다. 원자력 잠수함의 출현은 대잠수함전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디젤 추진 잠수함은 충전을 위해 자주 수면 가까이 잠항이 필요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무한에 가까운 항속 성능과 향상된 수중속도로 잠항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이러한 잠항 성능을 바탕으로 원자력 잠수함은 기존 대잠수함 탐지망으로부터 단시간에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 대응이 곤란했다.

향상된 잠수함 성능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역시 다양한 탐지수단을 갖추게 됐다. 특히 해상초계기는 다양한 탐지수단과 함께 이를 항공기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



서방측의 대표적인 해상초계기 P-3

식별할 수 있는 역합성 개구 레이더(ISAR)와 잠수함으로 인한 온도차를 영상화해 표적을 식별하는 적외선 탐지체계(IRDS), 위협 전자파를 탐지·식별·경고하는 전자전장비(ESM) 등 첨단 임무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꼬리날개 뒤에 위치한 자기탐지기(MAD)는 잠수함에 의한 지자기 변화까지 탐지해 내 잠수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1960년대부터 대량생산된 P-3는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형 외에도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고 전술을 적용하기 위한 전술통제사(TACCO)를 작전에 필요로 하게 됐다.

1950년대 美 해군의 주요 해상초계기로는 P-2(P2V)와 P-5(P5M)이 있었는데, 이들 기종은 전술통제사 자리 추가가 곤란하거나 비행성능, 승무원의 근무환경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후계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개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57년 8월, P-2 항공기의 후계기를 요구한 美 해군에 대해 록히드 사는 비용과 일정 단축을 위해 기존의 L-188 일렉트라 여객기의 개조형을 제안했다. 경쟁 끝에 美 해군은 록히드 사의 개발안을 선정해 P-3A(P3V-1)로 명명하고 주력 해상초계기로 전력화시켰다.

P-3 계열 중에서 가장 널리 운용되고 있는 파생형은 P-3C형이다. 4,910마력의 터보프롭 엔진 4개로 추진되는 P-3C는 어뢰나 하푼 미사일을 탑재하고 12시간 이상 임무 수행 가능하다. 최대속도는 750km/h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초계속도는 380km/h다.

P-3C에는 360도 전 방향으로 최대 370km까지 형상을

EP-3, VIP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UP-3로도 개량되었다.

P-3는 서방측의 대표적인 해상초계기로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는 만큼 실전경험도 풍부하다. 美 해군의 P-3C는 걸프전에 참전해 항모 및 수상함 주위 해역에 대한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항모에 탑재된 A-6E, F/A-18C와 함께 작전을 실시하며 표적정보를 제공하고 손상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야간에 이동 중인 이라크 공기부양정을 P-3C가 탐지해 A-6E의 공격을 도왔으며, 이란으로 피신하는 이라크 함정 수십 척을 발견해 파괴시키는 등 걸프전 중 대함 교전의 약 66%가 P-3C의 협동작전으로 이루어졌다.

P-3는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주요 해상초계기로 운용되고 있다. 서방측의 대표적인 해상초계기인 P-3는 상당 기간 현역에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보잉 737을 토대로 개발된 P-8 해상초계기가 전력화되면서 점진적인 도태가 시작될 전망이다. □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미국 Ⅲ. 덴버

덴버(Denver)는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길목의 도시이다. 콜로라도(Colorado) 주의 주도이며, 로키산맥 기슭에 있는 이 도시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미국의 스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구 약 70만 명의 덴버는 해발 고도 1,610m의 지형으로 미국 주요 도시 중에

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있어 ‘마일 하이 시티(Mile-High City)’라는 별칭이 있다. 덴버는 과거 스페인 제국의 영토였지만, 결국 미국에 병합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기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1954년 미 공군사관학교도 이곳 덴버의 공군기지에서 창설되었다.



콜로라도 주 국회의사당 전경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사가 설립한 항공우주박물관(Wings over the Rockies Air & Space Museum)

덴버 외곽의 항공우주박물관(Wings over the Rockies Air & Space Museum)은 美 정부의 장비 대여와 민간회사의 예산 투자로 건립되었다. 박물관 앞에는 위풍당당한 B-52 폭격기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1952년 초도 비행을 한 이 폭격기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면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BUFF(Big Ugly Fat Fellow, 덩치 큰 못난이 똥보 친구)'라는 별칭을 가진 이 폭격기는 미국 항공기술력의 진수를 보여준다. 비행장 관제탑을 그대로 살린 박물관 입구를 지나 거대한 격납고 전시실에 들어서면 수십 대의 항공기와 우주선이 눈에 들어온다. 관람객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인 스티브(Steve)는 자신을 우주선 회사의 전문 기술자로 소개한다. 주말에는 이 박물관에서 회사소개 및 항공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딸 역시 가까운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Springs)에 위치한 美 공군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스티브 씨는 다음과 같이 이 박물관의 역사를 설명한다.

“이곳 항공우주박물관은 美 정부로부터 항공 장비를 지원받아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사가 완공했다. 콜로라도 주는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관련 회사만 250여 개에 달한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우주항공학과는 미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 학과이다. 또한, 콜로라도 주에는 이런 항공우주박물관이 4~5개소가 더 있다. 박물관 부지는 과거 덴버 공군기지였으며, 1954년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창설된 곳이다. 1958년 美 공사는 덴버에서 150km 떨어진 스프링스로 이전하고, 1966년에는 공군기지까지도 폐쇄되었지만, 현재 2층 전시실에는 美 공사의 창설 과정과 사진 자료들을 별도로 전시하며 그 역사를 전하고 있다.”

항공 역사가 살아있는 박물관 이모저모

격납고 전시실 첫 코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전사한 조종사 추모 조형물이 있다. 당시 전쟁에서 88,000명 이상의 미군 조종사들이 전사했다고 한다. 조종사 2명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숙인 동료의 형상 옆에는 “영원히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거대한 전시관에는 최초 항공기부터 군용기의 발전 과정, 우주 탐험의 역사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900년대 초기 항공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항공기들이 천장에 매달려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끈다. 전시장 벽면에는 대형 성조기와 함께 이 박물관에 후원한 개인과



덴버 항공우주박물관의 B-52 폭격기



덴버 항공우주박물관 내부 전경

기업의 홍보 사진들이 뽁뽁이 걸려있다. 비행 체험 곤돌라 코너에는 많은 청년이 몰려 있다. 사각형 통속에 들어간 관람객이 안전띠를 묶고 조종간을 잡으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아래위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 옆에서는 중·고교생들에게 항공 유년대 가입을 권유한다. 이는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주 3시간 군사훈련과 비행기술을 교육받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의 교육비 일부는 美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고교 졸업 시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군 복무의 의무가 없어 향후 진로 역시 본인의 원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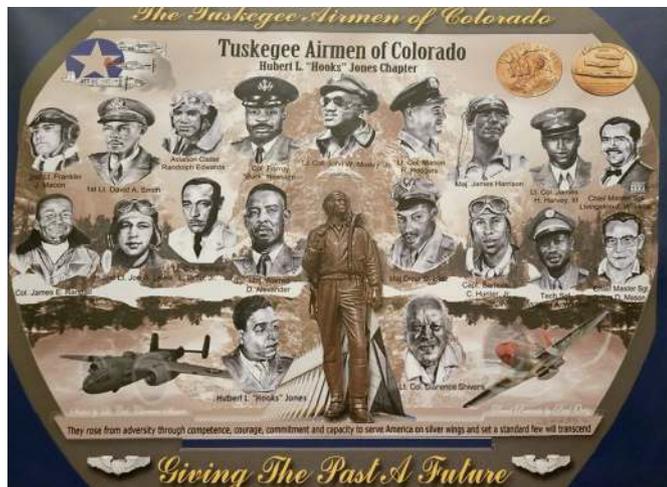
모형 우주선과 우주인



비행 체험 곤돌라 모습

콜로라도 주 국회의사당과 투명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덴버시는 중앙역과 시내 번화가 사이 무료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버스 종점 부근에는 넓은 녹지공간을 두고 시청사와 의사당 건물이 마주 보고 있다. 황금으로 돔(Dome)을 장식한 의사당은 하원 의원 100여 명과 상원 의원 30명이 국정을 논하는 곳이다. 이 의사당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덴버 국회의사당은 건물 자체가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200여 년 전 주민들은 합심해서 화강암을 쪼개고 갈아서 의사당을 건축했다. 대역사였지만 자신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대표들이 일할 곳이라고 건축에 정성을 다했다. 건물 돔은 최초 납으로 장식했으나, 훗날 황금으로 다시 도금했다고 한다. 호화로운 의사당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 철학을 담고 있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이다. 주민들은 회의장 방청석에서 언제든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참관할 수 있다. 테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의원 사무실, 무인카페 등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복도에는 콜로라도 출신 전쟁영웅·공군 ACE* 소개도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자신의 처신이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부정부패는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았다.



콜로라도 주 의사당 내 콜로라도 출신 공군 전쟁영웅

* 전투조종사들 중 뛰어난 실력을 갖춘 조종사를 가리키는 말로, 보통 적기 5기 이상 격추시켰을 때 이 칭호를 받는다.

스프링스 美 공군사관학교를 찾아서

덴버에서 출발한 시외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려 2시간 후 스프링스에 도착했다. 다시 택시로 20여 분을 달려 美 공군사관학교에 내렸다. 외국인은 미군 보충인 동반 시에만 출입이 가능하여 아쉽게 그 내부는 관람하지 못했다. 높은 산 밑의 넓은 캠퍼스를 가진 美 공사는 4,300여 명의 생도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관학교 입학조건 또한 까다롭고 엄격하다. 연방 상·하원 국회의원 추천은 물론 최상위 수준의 고교 성적 역시 요구된다. 웅장한 하얀색 캠퍼스 건물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정말 아쉬웠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자유분방한 미국 사회에서 “조국 수호와 하늘에 꿈을 펼치자!”라는 기치 아래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美 공사 생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대견하면서도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美 공군사관학교 캠퍼스(출처: 게티이미지)



美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전경(출처: 게티이미지)



美 공군사관학교 Cadet Chapel(출처: 게티이미지)



퍼레이드 중인 美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출처: 위키피디아)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장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2월 6일(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CN-235(좌)와 美 공군 C-130(우)가 훈련을 위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 2024년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 참가

우리 공군은 2024년 2월 3일(토)~16일(금),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총 6개국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 우리 공군은 CN-235 항공기 2대와 조종사, 정비사, 의무요원 등 30여 명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훈련 참가국들은 항공의무후송, 인원·화물공수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증진했습니다.



2월 9일(금), 연합 항공의무후송훈련 중 한국 공군의 CN-235 수송기에 이송된 미국 환자를 우리 의료진이 간호하고 있다.



2월 12일(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화물의장사가 CN-235 수송기 기내에서 정해진 목표지역에 화물을 투하하고 있다.



서울 및 원주기지 대비태세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2월 1일(목)과 2월 6일(화), 각각 서울기지와 원주기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원주기지에서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및 필리핀 에어쇼 임무완수 결의식’을 주관하며 “블랙이글스는 초고난도 특수비행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방산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각자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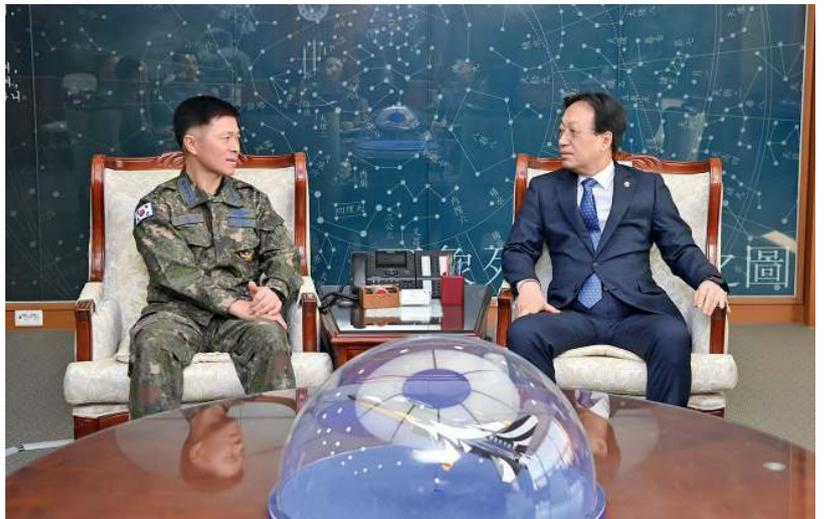


공군 정책발전자문 위원회 전체회의



이영수 참모총장은 2월 1일(목), 공군 호텔에서 2024년 공군 정책발전자문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군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참모총장은 “공군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자문위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 과정에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천문연구원장 접견



이영수 참모총장은 2월 13일(화), 공군본부에 방문한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을 접견했다. 참모총장은 한국천문연구원장과 함께 국가 우주분야 및 우주군사력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공군-한국천문연구원 간 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군작전사령부

부대 장병 대상 영화 상영

공군작전사령부는 2월 7일(수), 오산기지 장병과 군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대원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 영화관 제작업체인 ‘(주)R&R’과 협조하여 기지 강당인 칠성홀에서 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를 상영했다. 영화를 관람한 장병들은 “흥행작을 동료 전우들과 관람하여 팀워크와 군인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사령부

청소년 대상 진로캠프 실시

공군교육사령부는 2월 16일(금), 경남지역 중·고등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진로캠프는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공군이 되는 법, 공군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전투비행단

'24-1차 전투태세훈련 실시

제1전투비행단은 1월 29일(월) ~ 2월 1일(목), 전시 임무 절차 숙달과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태세 훈련(ORE: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실시했다. 1전비는 기지방어, 항공기 사고처리 등 전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훈련함으로써 비행단의 종합적인 전투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제8전투비행단

초급간부 대상 어학 학습동아리 운영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월부터 초급간부 대상으로 어학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어학 우수자인 장성현 일병을 멘토로 하는 어학 학습동아리는 주 2회 일과 후에 운영되고 있다. 동아리를 통해 8전비 초급간부들은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어학 자격증 문제 풀이법은 물론 기초회화 실력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1전투비행단

비수(PISU) 훈련 실시

제11전투비행단은 2월 6일(화), ‘비수(PISU: Punish Immediately, punish Strongly, punish Until the end)’ 훈련을 실시했다. ‘PISU’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의 영문 표현으로 한글식 발음인 ‘비수(匕首)’는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전비 F-15K 조종사들은 최신 전술 교리와 공중기동을 반영한 가상 상황 속에서 위기조치 절차를 숙달하며 다중복합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제20전투비행단

'24-1차 공격편대군 훈련 실시

제20전투비행단은 2월 5일(월), 아군 적 타격 임무 시 예상되는 적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다. 20전비 KF-16 조종사들은 야간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언제든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했다.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설탕: 달콤 씹쓸한 역사



노고은 요리연구가

요리연구가이자 대한민국조리기능장으로 '세상의 모든 레시피'와 '한국외식관광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는 것을 즐기고,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맛은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단맛은 보통 잘 익은 열매에서 나는 맛이다. 그와 대비되는 쓴맛의 경우 통상적으로 설익은 열매에서 난다. 설익은 열매는 복통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인류는 진화를 거치며 단맛을 통해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을 판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맛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맛을 가진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설탕이다. 설탕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하며 사탕수수는 남태평양 뉴기니 등지에서 처음 재배되었다. 이후 사탕수수는 아시아로 전파되었고 인도인들에 의해 사탕수수를 줄여 원당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6세기경 사탕수수와 설탕 제조 기술이 인더스강 서쪽으로 이동되어 페르시아까지 알려졌다. 사탕수수와 설탕의 전파를 촉진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7세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사탕수수는 아랍 지역과 북아프리카까지 전파되었다. 아랍 지역에 전파된 설탕은 이후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까지 전달되었다. 설탕의 단어를 보면 이러한 이동 경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설탕의 영어 단어인 'sugar'는 중세 인도 지역에서 사용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자갈이나 작은 덩어리를 뜻하는 'shakara'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흔적은 페르시아어 'shakar', 아랍어 'sukka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설탕이 처음 유럽에 전래될 당시 설탕은 귀족층과 부유층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부유층들은 요리의 풍미를 보완해 주는 설탕의 능력과 단맛 자체로 의미가 있는 설탕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15세기 바티칸의 사서는 “옛사람들은 설탕을 의약품으로 사용했는데, 설탕을 넣으면 맛을 살리지 못할 음식이 없다.”라고 하였다. 귀했던 설탕은 유럽에서 사치품이자 신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약품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동시대의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494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우의정이 병으로 위독하다고 하여 성종이 사탕과 감귤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사탕은 사탕수수에서 분리한 원당의 형태였다. 병에 걸린 최고위 관료에게 약으로 왕이 하사한 것이 바로 설탕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가치가 있는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는 인류 농업의 신기원을 연 작물이다. 쌀이나 밀과 같은 주식이 아니면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대규모로 재배한 최초의 단일 작물이다. 드넓은 평야에 가득히 심은 과일을 수확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한다. 넓은 지역에 단일 작물을 심어 생산을 극대화하는 ‘플랜테이션’ 농업 형태가 사탕수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탕수수의 대규모 재배는 유럽인들이 서인도제도를 식민 지배하고 수백만 아프리카인 노예를 통해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서인도제도의 기후는 사탕수수의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재배 및 설탕 공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통해 충당이 가능했다.

설탕은 근대사가 응축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에 유럽의 공산품을 공급하고 아메리카로 노예를 실어 보냈다.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를 팔고 설탕을 싣고 유럽으로 돌아왔다. 이른바 삼각무역이 탄생한 것이다. 무역을 통한 거대한 부의 축적은 대량생산과 무역, 소비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발달시켰고, 화폐를 통한 사람과 물자의 매매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플랜테이션을 통해 사탕수수 생산량이 증대되고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방법이 고안되며 설탕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값싼 설탕이 등장하였다. 설탕은 사치품에서 점차 기호품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설탕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달콤한 맛과 반대되는 씹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설탕의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가 요리를 하며 흔히 마주하는 작은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설탕과 소금 중 무엇을 먼저 넣으면 좋을까? 바로 설탕이다. 통에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나중에 넣으면 틈 사이로 작은 돌이 들어가지만, 작은 돌을 먼저 넣으면 틈 사이로 큰 돌이 들어갈 수 없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요리할 때 설탕을 먼저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탕 입자는 소금 입자보다 크다. 그 때문에 소금을 먼저 넣으면 설탕이 식재료에 잘 스며들지 않는다. 입자의 크기 차이 때문에 소금보다 설탕을 먼저 넣어야 재료가 단맛이 골고루 스며든다. 스며든 단맛을 느끼며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맛 속에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동서양 그랜드투어

정선의 「금강전도」: 화가의 눈으로 재구성한 금강산



이민수(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초빙교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2023년 전북도립미술관 객원연구원, 2021-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공저서로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한국미술연구소CAS, 2018), 공역서로 《미술사방법론》(세미콜론, 2012), 《육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아트북스, 2005)이 있다.

조선 후기의 화가 정선(鄭敼, 1676~1759)이 그린 「금강전도(金剛全圖)」는 그가 금강산을 수차례 오르며 실제로 보고 느낀 내금강의 전체 경관을 담아낸 작품이다. 화가는 마치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한 시점으로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를 한데 묶어 동그란 원형으로 묘사했다. 봉우리 하나하나가 꽃잎처럼 겹겹을 이루며 두른 것이 한 떨기 연꽃처럼 보인다.

금강산의 명칭은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적힌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불교의 성지처럼 여겨진 금강산은 조선 중기의 문인 정철(鄭澈, 1536~1594)의 「관동별곡(關東別曲)」과 같은 옛 시가(詩歌)에서 연꽃에 비유된 적 있으며, 정선의 그림 역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림 오른쪽 윗부분에 쓰인 글씨는 그림에 관련된 시문으로 ‘제화시(題畫詩)’라 부르는데,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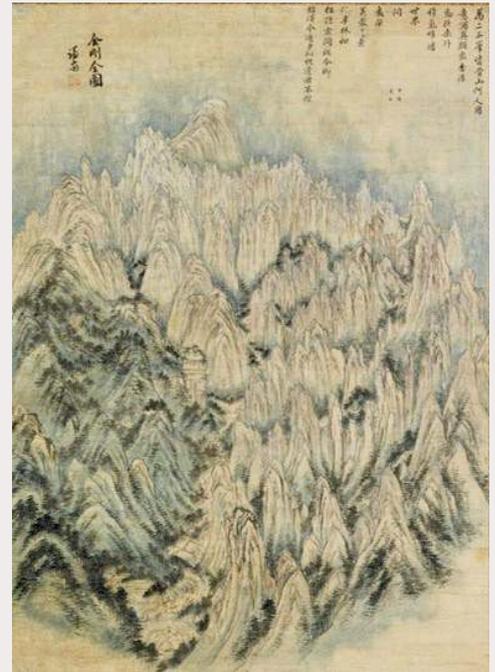
“만 이천 봉 개골산¹⁾, 누가 참 모습을 그릴런가. 못 향기 동해 밖에 떠오르고, 쌓인 기운 세계에 서려 있네. 몇 송이 연꽃 해맑은 자태 드러내고, 솔과 잣나무 숲에 절간일랑 가려 있네. 비록 걸어서 이제 꼭 찾아간다 해도, 그러서 벽에 걸어 놓고 실컷 보느니만 못하겠네.”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 배치한 글씨 하단의 여백에 ‘갑인년 겨울에 지음(甲寅冬題)’이라고 쓴 관기(款記)²⁾도 보인다. 이 시문은 그리기 까다로운 금강산의 불교적 의미와 구체적인 형태를 글로 또 한 번 묘사함과 동시에 옛 선비들의 와유(臥遊)³⁾ 사상까지 풀어낸 최고의 감상평으로 평가받는다.

1) 겨울의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2) 글씨나 그림을 완성한 뒤 작품 안에 이름, 제작 연월일 등의 내용을 적은 기록
3) 옛 선비들이 산수를 즐기는 태도로써 누워서 산수화를 펼쳐보며 산수 유람을 간접 체험한다는 뜻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림 위쪽에 봉긋이 솟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다. 그 아래로 날카로운 암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오른쪽으로 이어지면서 화면의 중앙을 가르며 아래쪽으로 모여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이룬다. 반면 그 반대편인 화면의 왼쪽은 점점이 나무들이 숲을 이룬 부드러운 토산의 둥근 봉우리들로 채워져 있다. 그림 정중앙에는 금강산 모든 골짜기 물이 하나로 합쳐져 흘러 내려오는 만폭동이 보인다.

만폭동을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 암봉들 사이에 보덕암이 있고, 왼쪽 하단 토산들 사이에 정양사와 표훈사가 보인다.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 계속해서 시선을 내리면 화면 맨 아래쪽 부근에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된 장안사와 내금강 입구의 무지개다리인 비룡교까지 세밀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선은 그림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 구석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림



[도판] 정선, <금강전도>, 1734년, 종이에 수묵담채, 130.4x94.1cm, 삼성미술관 리움

상단 봉우리들의 능선 윗부분을 푸른색으로 칠해 한 떨기 연꽃과 같은 원형의 구도로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왼편의 짙은 흙산과 오른편 밝은 돌산의 대조는 단순히 조형적인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림 전체 형상은 곧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이루고 있다. 태극(太極)은 동양의 고대 사상 중 음양 사상과 결합해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의 근원으로서 『주역』에서 역설한 개념이다. 이는 정선이 쇠락한 사대부 출신의 유생으로 『중용』과 『대학』은 물론, 『주역』에도 능했던 점과 연관된다. 그가 지은 호 ‘점재’ 역시 『주역』에서 따온 것으로, ‘군자는 겸손하고 겸손하니 낮추어서 자기를 기른다.’는 뜻이다.

정선은 생원이나 진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문신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천거를 통해 40대에 이르러 하급 관원으로 벼슬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선은 한미한 사대부 출신의 전문적인 문인 화사라는 당시로서도 새로운 혼성적 경향의 화가 유형이었다. 이는 선조 때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문인들의 서화 수집과 감상 애호 풍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선은 서화 애호 문사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금강전도」는 이른바 진경산수화로 정선은 금강산을 여러 번 올라 깊이 관찰하며 이를 토대로 그림을 완성했다. 그러나 내금강 어디에서도 그의 그림처럼 일만 이천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은 없다. 「금강전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발로 딛고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아낸 내금강 입구 비룡교부터 최고봉 비로봉까지의 구석구석 형상을 날카로운 화가의 눈으로 내려다보며 재구성한 결과이자 더할 나위 없는 금강산의 진경이다. 

한 달, 한 권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순수함 『어린 왕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정효숙 작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꾸준히 올린 기록이 쌓여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랑이씨)가 되고, 2023년 10월에는 도서 부문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되었다. 책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한 달, 한 권> 코너의 홀수 달 작가, 도서 인플루언서 랑이씨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네요. 3월호는 어른을 위한 ‘동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왕자』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어린 왕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작품입니다. 생텍쥐페리는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 면허를 땀고, 아프리카 북서부와 남아메리카를 통과하는 우편 비행을 담당했어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리비아 사막에 추락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는데, 이때의 경험이 책 『야간비행』, 『남방 우편기』, 『어린 왕자』에 영향을 미쳤죠.

『어린 왕자』는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와 소행성 B612에서 찾아온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 나 표류한 ‘나’는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를 만나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그가 살던 별, 그 별을 떠난 이유, 그의 여행에 대해 알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곳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는 작은 별이에요. 그 별의 땅은 바오밥나무 씨앗투성이였고, 그 나무가 크기 전에 먹어 줄 양이 필요했던 거죠. 작은 별은 화산, 꽃잎이 한 겹인 소박한 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까다로운 꽃 장미가 나타나고, 어린 왕자는 그 꽃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별을 떠나왔어요.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했고, 마지막 여행지 지구에서 조종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꼭 일 년째 되는 날 다시 작은 별로 떠나죠. 조종사는 어린 왕자와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합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읽은 『어린 왕자』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어린 왕자의 순수한 질문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진솔한 문체와 이야기는 여운이 남아요.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구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령 네가 오후 네시에 온다면 난 세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네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 더 행복해지겠지. 네시가 되면 나는 너무 흥분해서 안전부절못하게 될 거야. 나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지.”

“나는 저 많은 별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고,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모든 별들이 아저씨에게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브라질의 국민 작가 J.M.바스콘셀로스가 쓴 작품인데요. 작가는 1920년 브라질 방구시에서 태어나 가난으로 인한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소설이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소설의 주인공 제제는 실직한 아버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형과 누나들, 어린 동생과 함께 지내는 다섯 살 꼬마입니다. 장난기가 심한 제제는 걸핏하면 욕을 먹고 심한 매질을 당하지요. 어느 날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쫓기듯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작고 불품없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만나요. 그 나무를 ‘밍기뉴’라고 부르며 친구로 지내게 되지요. 또한 발을 다친 제제를 ‘쁘르뚜가 아저씨’가 돌봐주면서 점차 가까워지고 서로를 아껴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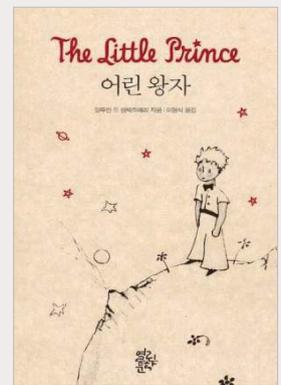
가족과 주변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제제는 ‘밍기뉴’와 ‘쁘르뚜가 아저씨’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배워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사고로 둘을 잃게 된 제제는 한순간에 어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렸던 소설이에요. 제제는 분명 장난기가 심했지만, 그 속에 착한 천사도 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의 빈 꽃병이 안타까워 몰래 꽃을 꽂아놓고, 자기 간식을 흑인 소녀와 나눠 먹는 아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악보 파는 아저씨를 따라다니는 순수한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어린 시절을 안아주고 싶은 가슴 아픈 성장소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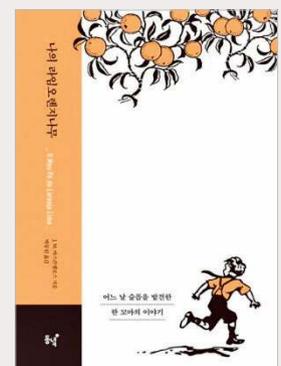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뿌르뚜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어떤가요?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남을 책을 읽고 싶다면 두 책을 꺼내보세요. 어릴 적 읽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일 거예요. 어린 왕자와 제제의 순수한 모습을 만나 여운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5월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
안토앵 드 생텍쥐페리 지음 | 민중문화사 펴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Meu Limão de Laranja』
J.M.바스콘셀로스 지음 | 동녘 펴냄

영화로운 나날

「동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송희 영화전문블로거

어릴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열렬하게 좋아한 끝에 부산대학교방송국의 PD를 거쳐 부산 KBS-FM에서 작가를 했고, 대종상영화제에서 예산심사를 맡았었다. 지금은 '송이둥이'라는 필명으로 영화 평론을 쓰는 네이버 영화전문블로거·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하지만 대한민국의 3월 하늘은 유독 시리도록 차갑고 푸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하늘 아래 서면 '청춘'이라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사그라진 청년 시인 윤동주가 생각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살펴보기 좋아하는 이준익 감독이 2016년에 내놓은 흑백영화 「동주」는 민족 시인 윤동주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옆에서 닮은 듯 다른 색깔의 빛을 내던 송몽규의 삶도 함께 조명하고 두 사람이 보여준 각기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을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동주와 그를 취조하는 일본 형사를 중심축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극은 진행됩니다. 때론 과거의 일들이 추억의 이름으로, 때론 괴로운 기억으로 비칩니다.

1935년 같은 집에 살던 고종사촌 사이인 윤동주와 송몽규는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정반대 성향의 인물로 묘한 라이벌 관계를 그리며 그 둘은 등장합니다. 몽규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가 하면, 어린 나이에도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치는 행동가로 활약하지만, 동주는 시를 쓰고 잡지를 만들면서도 일제에 정면으로 대항하거나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주와 몽규는 경성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로 진학합니다. 학교를 다니던 도중, 일제의 창씨개명 강요가 시작되자 고향을 떠나 일본 교토로 유학을 떠나고, 몽규는 일본에서도 꾸준하게 뜻이 맞는 학생들을 규합해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과거 몽규는 동주에게 세상 바꿀 용기가 없어서 문학 속으로 숨는다고 말한 적 있으나 정작 동주가 학생독립운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자 “너는 시를 써라, 충은 내가 들게”라며 동주를 배려합니다. 절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1917년 같은 해에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를 다녔고, 학생독립운동이라는 같은 혐의로 체포돼 1945년 조국의 광복을 몇 개월 앞두고 같은 형무소에서 28살이라는 같은 나이에 생체실험 후유증이라는 사인으로 눈을 감으며 같은 길을 걸어간 동주와 몽규, 두 사람의 태도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자백서에 서명을 강요받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뭇 다르게 표현됩니다. 몽규가 제일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 사상교육을 했다고 자백을 강요받는 대목에서 내가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괴로워서 서명한다고 울분을 토하는 반면, 동주는 똑같이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거절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일제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며 에너지를 내뿜는 이 장면은 영화 「동주」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영화 「동주」에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마저 사랑한 시인의 길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배우 강하늘의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목소리로 『흰 그림자』, 『참회록』, 『별 헤는 밤』, 『새로운 길』, 『자화상』, 『서시』 등등 윤동주의 시가 읽히는데 주권을 잃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으면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보이는 얼굴조차 어느 왕조의 유물처럼 욕된다.”라고 시를 썼을까? 하고 청년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줍니다. 항상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 윤동주 시인이 유일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순간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갈망했던 시인 윤동주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 힘을 빌려 누구보다도 뜨겁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영화 「동주」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인 몽규와

문학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했던 시인 동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듯 다른 두 젊은 청년의 불꽃같은 삶과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주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꿈꾸고 희망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색깔을 잃은 영화 속 동주와 몽규를 통해 과거의 자화상을 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의 엔딩은 청년 동주와 몽규 두 사람의 모습이 흑백이 아니라 열린 색의 컬러로 보이며 마치 못다 핀 청춘의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려지면서 마무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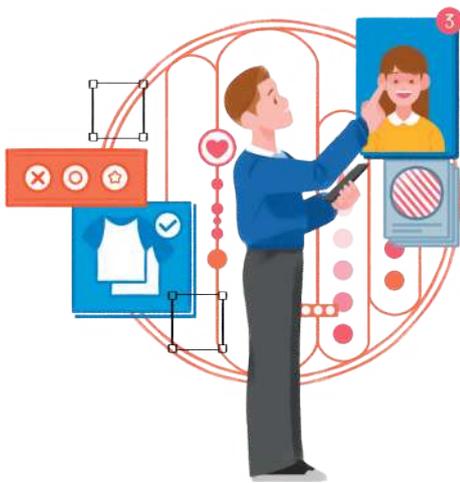
좋은 영화는 나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변화·발전시키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화 「동주」를 보고 나서 가슴속을 헤집고 다니는 바람이 느껴지신다면, 민족 시인 윤동주의 흔적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서울 서촌에 가면 윤동주의 하숙집 터가 있고 청운동에는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시리고 푸른 3월, 이곳들을 찾아 청년 동주의 발자취를 느끼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동주」

생각하는 그림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과 관심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 SNS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미디어 자료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 (Algorithm)’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원래 알고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절차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구미에 맞는 콘텐츠를 알아서 제시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매체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습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정보를 고를 수 있는 사회로 진입했지만, 정작 우리의 사고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MoveOn)’의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는 용어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필터 버블이란, 사용자에게 맞게 필터링 된 정보가 거품처럼 사용자를 가둬버렸다는 의미를 담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Cass R.Sunstein)은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라는 인지적 편향을 제시했습니다. 에코 체임버는 한 사람이 낸 목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증폭된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관점을 차단하고, 선호하는 관점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사용자들의 심리적 편향을 지적한 것이죠.



이러한 편향들의 문제는 개인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뉴스, 듣고 싶은 소식만 듣게 된다면, 결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사고가 게시물에 정한 틀 안에서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은 좀 더 입맛에 맞는 게시물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해서 먹고 싶은 것처럼, 누구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음식만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채울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꺼려지는 이야기라도 심도 있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미디어가 제공한 넓은 시각과 다양한 관점의 자유를 책임 있고 의식 있는 태도로 소화할 수 있는 공군인이 되길 바랍니다. ☑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CES 2024 돌아보기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래를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 박람회가 개최된다. 바로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이다. 지난 1월 9일(현지 시각)부터 12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Las Vegas Convention Center)를 중심으로 CES 2024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3대 테크 행사(Apple, Google, NVIDIA, 삼성 등 특정 기업이 하는 행사 제외)로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월이나 3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 정보통신전시회), 9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IFA(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 국제가전박람회)를 꼽는데 그중에서 CES가 가장 주목도가 높다. 아무래도 매년 1월에 열리다 보니 누구보다 빠르게 새 전자제품 기술을 살펴볼 수 있고, 시장의 주요 이슈와 동향 및 미래 전망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의사 결정권자, 인플루언서, 미디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다.

CES 2024는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로 ‘모든 산업과 기업이 다 함께 인류의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아 열렸다. 이번 주제인 ‘All Together, All On’의 핵심은 AI이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골자였다.

2023년 12월, 포브스에서는 ‘2024년부터는 AI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냈다. 이는 AI 기술이 정체하거나 비중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일상에 녹아들며 더 이상 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일명 ‘AI 역설(AI paradox)’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CES 2024를 통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생각이 확인된 것은 CES 행사 중 진행된 세미나 세션인 “Great Minds, Bold Visions: What’s Next for AI?” 현장을 참관하고 나서이다.



CES2024 현장에서 대담중인 Fei-Fei 교수와 Andrew Ng교수 (가운데, 우측) 출처 CTA



CES2024 로레알 키노트 현장에서 CEO시연모습

이른바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와 AI의 어머니로 불리는 페이 페이 리(Fei-Fei Li) 교수의 대담이었는데, 이 대담 중 그들은 AI를 ‘전기차와 같은 보편적 기술’로 정의했다. AI는 전기처럼 범용 기술이 되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미 산업과 소비자 경험에 깊이 파고 들어 사회·경제·정치 환경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구체화되지 않았던 기술의 미래가 AI를 통해 현실화가 되고 있음을 부스들을 돌면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CES 현장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보이던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누적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상품화가 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꿈으로만 그칠 줄 알았던 많은 비전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결과물을 보면 정말 멋지고 놀랍지만 그 노력의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의 데이터, 나만의 방법론,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빅데이터 서비스는 물론 인공지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나만의 데이터·방법론·노하우를 묵묵히 만들어 오며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쌓아 올린 기업들만이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화룡점정에 이를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무 이야기만 해도 대답을 그럴듯하게 잘해주는 ‘Chat GPT’ 서비스 속에는 방대한 빅데이터가 숨어있다. 이러한 AI가 ‘우리 회사’, ‘우리 기관’을 위해 똑똑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우리만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중들은 그 회사의 똑똑한 AI를 통해 결국 ‘편안하고’, ‘익숙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웅당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이고 비즈니스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디지털 전환을 천명했다. 결국 실패하거나 쉬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곳곳이 자신의 길을 가며 완성된 제품을 구현했고 AI와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통해 ‘AI’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일상에 스며드는 ‘미래’를 보여주었다. 왜 이것을 써야 하는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사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업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을 하게 하는 CES였고, 이것이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가 갖는 의미이다.

원래 CES의 본질은 기업과 기업이 만나고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제 CES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비전과 미래를 전달하는 쇼의 역할을 하고 있다. CES는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한사람이 모든 현장을 행사기간 내에 자세히 다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참관자들이 기술을 보는 관점에 따라 모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기술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쇼를 바라본다. 그러다보니 상품 하나하나보다는 쇼가 이야기하려는 의미와 산업적 관점에 집중하며 이번 쇼를 바라보았다. 이 관점에서 CES의 미래를 생각해보는다면 앞으로의 CES는 전통적인 기술기업과 가전기업들보다 소비자 기업이나 미디어 기업들이 더욱 더 많이 출연하고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디지털 전환의 화룡점정을 생성형 AI가 찍어줌으로써 같은 기술이지만 기업의 분야에 따라 맥락이 다른 장점들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CES에 우리도 나가서 우리의 메시지를 자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CES 현장에 가보시길 추천을 드린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CES 이후에 쏟아지고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의 리포트를 읽어보시면서 미래를 생각해보시길 추천한다. 결국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미래를 발견하는 나만의 눈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김덕진 IT커뮤니케이터. 김덕진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이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교수,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책 읽는 공군

책을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상병 김선규

독서는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일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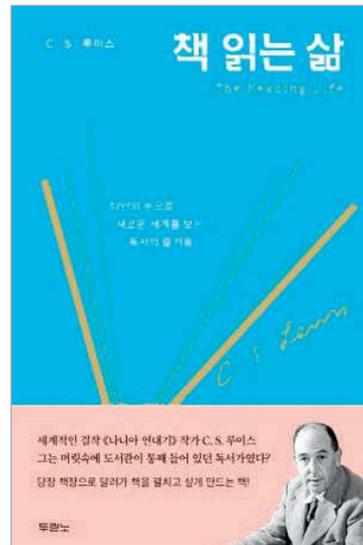
이 책은 책에 관한 책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이는 자신이 느끼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던 감각들을 언어화하는 쾌감을 느낄 것이며, 책과 거리가 먼 이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만의 비결로 습관처럼 책을 읽었던 작가 C. S. 루이스가 생전 책에 관해 쓴 산문을 수록한 『책 읽는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내는 책 읽기라는 행위에 대한 헌사이자, 책 읽기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처럼 읽힙니다.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은 책 읽기라는 행위에 적용해도 말이 됩니다. ‘책을 사랑하는 이들은 다 비슷하지만, 책을 멀리하는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멀리한다.’ 루이스는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을 다음으로 정리합니다. 1) 읽은 책을 다시 읽는 일을 즐기는 사람 2) 삶을 뒤바꾼 책을 따로 꼽을 수 있는 사람 3) 읽은 내용을 계속 반추하고 떠올리는 사람. 책 읽기에 한 번쯤 깊이 몰입한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분류를 쉬이 거부하기 어려울 테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책 읽는 사람’인 나 자신을 인식하는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경계가 확장돼 타인의 존재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는 한정된 시대”를 벗어나 학생들이 “더 공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문학 수업의 참 목표라는 작가의 설명처럼 말이죠.

작가는 이름난 독서가였지만, 기독교 저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작가는 생전 ‘나만의 책 읽기’가 아니라 ‘모두의 책 읽기’, 즉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의미 있고 쉽게 읽는 법에 대한 글을 여럿 남겼습니다. ‘아름

다움이 책 속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다’, ‘쓸모없는 장이 나올 때 주저 없이 건너 뛴다’와 같은 조언이 대표적이죠.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책 읽기’를 통해 독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그에게 적지 않은 보람이었을 듯 싶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타인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책 읽기는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경험이 언제나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가는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눈길을 끝내 저버리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 책 읽기를 멀리하게 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책을 펼쳐 보는 건 어떨까요? 책 읽기의 매력에 빠져 내 삶을 바꿀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책 읽는 삶』
C.S. 루이스 지음 | 무한노서원 펴냄

후회하더라도 괜찮다

Date . 2024 / 02 / 11

2년 전, 이 무렵은 많은 것들이 낯설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까지 말이다. 새로움은 필연적으로 설렘을 수반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망설인다. 새로움 뒤편에 감춰진 두려움 때문이다. 나 역시도 '시도를 할까? 그냥 시도를 해보지 말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는 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해왔던 일들이 아니기에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고민의 해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읽은 책 중에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이 있다. 이 해답을 찾으며 책 속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느끼는 후회보다 시도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후회가 더욱 크다.”

그렇다!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하지 않고 후회를 했을 때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시도는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많은 도움과 교훈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실패와 어려움의 종류를 줄여준다. 하지만 포기는 많은 후회와 미련을 남기며 시작과 시도를 하지 못한 자기마저 싫어질 수 있게 만든다.

아직 가보지 않음에서 오는 무지로 인해 첫 시작은 늘 두려움이 가득하다. 나 역시도 임관하여 첫 자대에 와서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게 겁을 먹었지만 그곳에 뛰어들어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던 나의 모습 덕분에 그때와 같은 어려움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당시 시작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시작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이제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끔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만약 처음에 겁을 먹고 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작 앞에 겁을 먹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도전과 시도에는 많은 경험과 가치를 지닌다고 말이다. ■



오늘의 감정



MEMO

부딪히고 시도해보자!

오늘 하루 만족도



토닥토닥 만남과 짐작

누구나 처음 맞닥뜨리는 일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곤란과 곤혹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걸음을 의심하기 마련이고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는 고개를 내젓다가 이내 폭 속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일 역시 때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 관한 것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처음’일 수도 있겠지요.

나와 상대는 그동안 다른 시간과 장소를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 말투를 이상하게 느끼지는 않을지, 어렵게 꺼낸 나의 생각이 혹여 그의 평소 생각과 너무 먼 것은 아닐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일처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마음의 간격을 빠르게 극복하는 묘안을 안타깝게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가 가진 면모들을 이것저것 보여주는 수밖에요. 솔직하고도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을 풀어낼 수밖에요.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날씨와 계절에 대한 이야기,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 라면을 끓일 때 나만의 비법, 혹은 어렸을 때 어떤 만화를 좋아했는지, 혹은 요즘 즐겨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상대와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조금이라도 겹치는 지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여전히 별것 아닌 이야기 같겠지만 관심사가 같은 우리에게는 순간 별처럼 반짝이는 것이 됩니다.



어느새 상대와 나는 세상 무엇보다 진지해지는 것이고요. 자연스레 관계도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지 실은 같은 공기를 마시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나와 상대는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간 우리의 시간을 아쉽고 애뜻하게만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관계의 풀림 혹은 마음의 풀림이라 여깁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더 이상 상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그 상대는 내가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서로 가까이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작(斟酌). 즉 상대의 사정이나 형편을 어림잡아 헤아리는 일입니다. 이 말은 도자기처럼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잔에 술이나 차를 따르는 일을 두고 생겨난 말입니다. 너무 적게 따라도 그렇다고 넘치도록 따라도 안 되는 일. 그러니 언제나 짐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도자기로 만든 잔처럼 여전히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탓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짐작과 함께 살아갑니다. 더 잘 짐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상대의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자주 헤아려보면서, 새로 맞이하는 봄날, 우리는 또 어떤 짐작을 품게 될까요. 



박준 시인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계절신문』 출간. 신동업 문학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박재삼문학상, 편운문학상 등 수상.

마음의 소리

김정환

jhman@naver.com**

어릴 적부터 여행을 좋아해 공항에 가곤 했습니다. 여행객들의 설렘과 기대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었기에 비행기와 공항에 대한 로망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지금은 비행단에서 일하며 단 '한 번'의 출격을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과 고단함이 담겨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설렘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비행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과 저도 누군가의 편안 한 잠자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군인으로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AF

김정환 님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멋진 다짐을 가지고 앞으로도 보람되 게 군 생활을 해나가길 응원합니다.

박소정

thwjd86@naver.com**

공군에서 발행하는 공군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알차고, 디자인도 큰 신경을 쓴 느낌이 들어 놀랐어요. 50여 장에 육박하는 공군지를 다 읽어보니 안보이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 장병들 덕분에 두 발 뺀고 잘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공군 장병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AF

공군과 공군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군은 여러분 모두 두 발 뺀고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남혁

nh3qo@gmail.com**

공군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적절한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취러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공테리어> 같은 코너도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조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F

좋은 의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풍성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3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49